

PA-36

기후변화에 따른 맥종별 재배한계지 재배현황 및 보급종 분포도

박현화¹, 김희권¹, 정병준¹, 국용인^{1*}¹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바이오한약자원학과

[서론]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세계적 또는 지역적 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서 장기간에 걸친 대기의 평균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난 100년간(1912~2008) 여름 지속기간이 13~17일 늘고, 열대야 현상은 매년 4~10일씩 증가하였으며, 겨울철 지속기간은 22~49일이 단축(농촌진흥청, 2011)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후 의존도가 높은 농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운 병해충이나 잡초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배환경의 변화로 수량 및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기온상승으로 주요 농작물의 주산지가 남부지방에서 충북, 강원 지역 등으로 북상되고 있다(통계청(1970~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그림 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맥종별 재배지 및 배배한계지 재배현황과 보급종 분포도 및 수확량을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재배한계지 이동 정도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코저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 대상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쌀귀리이고, 대상지역은 겉보리 경우 1월 최저기온 평균 -10°C선 및 주산지, 쌀보리의 경우 1월 최저기온 평균 -8°C선 및 주산지 및 맥주보리와 쌀귀리는 1월 최저기온 평균 -4°C선 및 주산지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1월~6월 사이에 조사하였다. 재배면적, 재배품종, 파종일, 보급종 사용 유무와 수확기 수량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전국 148 시, 군의 679 농가에 대한 맥류재배 농가 실태조사 결과, 쌀보리는 전남, 전북, 경남에서 흰찰쌀보리 품종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경북, 충남, 충북, 강원은 재안찰쌀보리 품종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겉보리 경우 전북, 경남, 경북은 큰알보리1호, 충북과 강원은 올보리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전국 쌀보리 평균 파종일은 10월 17일~11월 9일이었고, 겉보리 평균 파종일은 10월 26일~11월 13일이었다. 맥주보리는 10월 27일~11월 5일이었고, 쌀귀리는 10월 17일~11월 1일이었다. 전남과 전북 쌀보리 재배 일부 농가에서는 각각 12월 12일과 12월 25일에 파종한 경우가 있었고, 경남 및 경북 겉보리 재배 일부 농가에서는 각각 12월 15일과 12월 20일에 파종하였다. 쌀보리 및 겉보리 재배면적 등은 도별로 상이하나 전국 시, 군에서 재배되고 있고 맥주보리는 전남, 전북 및 경북에서만 재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맥류재배 농가 대부분은 보급종 종자를 사용하였고 그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사사]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014812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교신저자: Tel. +82-61-750-3286, E-mail. yikuk@sunchon.ac.kr